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옛 언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 3:13 - 4:6)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앞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다시 정리하여 말씀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산뜻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3:16),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4:2).

기념책이나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은 이미 앞서 나온 말씀이지만 또 다시 말라기 선지자가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중요한 교훈을 5 가지로 정리하는 가운데 본 강에서는 2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 변해야 할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인간은 반드시 변하는 법이어서 점점 나빠져 변하거나 아니면 점점 좋게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 천 년에 걸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때로는 기근을 주시고, 때로는 질병이나 전쟁을 주시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전혀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뱀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암 5:6).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호와를 찾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운전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암 5:8).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3:13-15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평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어떻게’ 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1:2).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오히려 반문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였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6). 이것은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까닭입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주님을 무시하면서 언제 주님을 무시했느냐고 가중찬 소리를 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7). 더러운 예물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은 재물만 있는 것이 될 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2:17).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는 말, 거짓말, 약속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매우 괴로우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하여야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같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은 지금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 계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과 같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율법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심판에서 확실히 드러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될 수 있으나 심판의 실체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원리는 수 천 년 전에 주신 것이지만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입니다.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3:7). 이것은 핑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3:8). 이것은 십일조와 헌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 뿐 아니라 시간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기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3:14). 이것은 신성모독죄(blasphemy)입니다. 이와 같이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3:16). 세상이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남은 자(remnant)가 있습니다. 엘리야 때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그 가운데 7천명이 하나님만 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니나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

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3:6).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므로 그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중 가운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있고 또 인간에게 전달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천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4:4).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같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 계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과 같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율법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4:1).

하나님의 불변성은 심판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될 수 있으나 심판의 실체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원리는 수 천 년 전에 주신 것이지만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4:6).

하나님은 이 약속의 날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농어촌 100교회 운동 이렇게 변경 시행한다

우리교회는 작년까지 민족복음화를 위해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운동인 '농어촌100교회 운동'을 개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총회의 '미자립교회 교역자생활비 평준화 정책'의 시행에 따라 선교위원회에서는 농어촌 100교회 운동을 총회의 방법과 기준에 의거 변경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교회가 소속한 노회(서울강남노회)는 1차적으로 대구 남노회 산하 63개 교회를 지원 대상 교회로 배당받았으며 그중에 39개 교회를 우리 교회가 분

담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는 이들 분담 받은 교회들에게 한 교회당 100만원을 최저 기준으로 정하고 후원자와의 결연으로 지원하게 되며, 이와 같은 지원 연결기간은 3년 단위로 하기로 총회는 결정했다. 총회의 미자립교회 목회자생활비 평준화정책은 올해가 실시 원년이므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잘 정착이 되어 목회자 수급의 균형을 이루고 민족복음화운동이 더욱 힘있게 진행 될 전망이다.

총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미자립교회 기준>

- 농어촌 지역 교회 연 예산 2천만 원 이하(읍·면이 속한 시·도)
- 중소도시지역 교회 연 예산 2천5백만 원 이하
-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 교회 연 예산 3천만 원 이하
- 도시 임대 미자립교회의 경우 임대료 공제
- 자가 건물이 있는 미자립교회도 연 예산을 기준으로 적용

<생활비 기준금액>

1. 목회자 본인과 가족 2인을 기본으로 기준금액은 월 1백만 원으로 한다.
 2.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이 추가되는 경우 1인당 10만원씩 부가수당을 지급한다.
 3. 중, 고등, 대학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중학생 월 5만원 ▶고등학생 월 10만원
▶대학생(1인 한정) 월 20만원

4. 생활비 책정기준(책정기준표 참조)에 의하여 해당 교회가 교역자 생활비를 부담하고 부족한은 지원교회를 연결하여 지원토록 한다.
5. 특별한 경우 사안에 따라 노회장의 추천을 받아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각 지원교회에 요청할 수 있으나, 생활비는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

예시)

교역자 외 가족 3인/자녀 중 중학생1명, 고등학생 1명 재학 중인 가족

· 기본액(100만원) + 가족1인 추가(10만원) + 중학생(5만원) + 고등학생(10만원) = 생활비 기준액 125만원 X 12개월 = 연 15,000,000원 필요

· 이 중(15,000,000) = 본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생활비(연 7,200,000) + 본 노회가 지원하는 지원액(1,200,000)(월10만) + 지원 과부족 산출액 6,600,000(지원하는 노회의 교회가 부담해야 할 금액)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주관 및 선교후원 결연식

3월19일(토) 오후 2시 육사교회당에서

우리교회 비전2020 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는 지난 2월23일(수) 진해 해군사관학교 교회에서 해사 59기 파송예배를 드린데 이어 3월19일(토) 오후 2시 육사 교회당에서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을 주관하고 선교후원 결연식을 갖는다. 그리고 매년 육사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중합동세례식 및 기타 중요 행사에 우리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날 세례 받는 이들은 육사 생도와 교인을 포함

하여 80명이며 집례와 설교는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가,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린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군이 복음화 되고 전 국민의 75%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은 비전2020운동본부로 신청하기 바란다.

신앙강좌 1부 개강

3월20일(주) 12시40분 402호

우리교회 협동목사인 김영한 목사가 지난 2004년 한해를 안식년으로 독일과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휴강을 해오던 신앙강좌 1부 강의가 3월20일(주) 오후 12시 40분 402호실에서 열린다.

이번 신앙강좌 1부 주제는 '신론'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날 현대사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가도록 한다.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2005년 100교회 결연 조정현황-

번호	교회명	교역자	결연자
1	큰빛교회	소재우(전)	김광신,이인선
2	상인교회	김성현(전)	김대호,남순덕
3	은광교회	박종화(목)	교구간사회/강승웅,서경애/김재근
4	대구열림교회	김찬중(목)	김사무엘,정경일
5	큰사랑교회	이영근(목)	베드로남선교회/박찬성,심명숙
6	수동교회	이희옥(목)	도르기여전도회/박정수,김경옥
7	지산중앙교회	이병열(목)	사랑의회/김영주,이혜순/박길수
8	은파교회	허만수(목)	아브라함남선교회/오형철,신동기
9	주인교회	김준호(목)	에스더여전도회/양춘경,이인숙/윤정식
10	늘푸른교회	김송학(목)	바울남선교회/김영민,배병이/김금준
11	민족열림교회	윤석홍(목)	사라여전도회/김형신,현기옥/사미용
12	낙원교회	석홍(목)	이영기,이영숙/전기섭,원영애/전수자
13	동광교회	김학순(목)	권사회/경명부,박경희/문상엽/문상식
14	사랑의교회	권종길(목)	한나여전도회/진두,김경희/고은화
15	고신삼육교회	김매영(전)	뫼비여전도회/오정수/김경애/김종자
16	이름대교회	권영길(목)	스데반회/손혜인,손호세아/신선주
17	제자교회	이준숙(목)	마리아여전도회/신용숙,김신영/이승민
18	대구소망교회	문동춘(목)	안드레남선교회/이경희,박태규
19	평신교회	권홍렬(목)	모세남선교회/12-2/박순옥/원용범
20	촌은교회	이규철(목)	임광식/정동학,김복순/주영도,오가연
21	대덕교회	이덕춘(목)	이양철,김미향,이성화/김복순,김현숙
22	원흥교회	최복심(목)	루디아여전도회/김복려/노영숙/신항범/임민철
23	대오교회	박삼식(목)	교역자회/임상현/장두원/장명순/정무균
24	옥곡교회	김동욱(목)	노송성,이영옥
25	김천교회	이재수(목)	빌립남선교회/이승우,서경숙
26	주님의교회	박성도(목)	대학부/오치열,허숙/현승집,최미아/곽숙
27	진광교회	이진호(목)	새가족부/고아라,고요한/홍은표
28	의향원교회	정손석(전)	초등부/김재중,김규경/정인주/조명준
29	영광교회	이강룡(목)	노문환,장정화
30	노변제일교회	박재호(목)	엘리아남선교회/박정선,김남순
31	미문교회	황용문(목)	윤용준,김명화
32	대곡교회	문정희(전)	김관집/김성준/노병호,홍지나
33	상인제일교회	김정환(목)	신종진/안인호/이종창/홍창배/원용규
34	바산교회	남기세(목)	순재자/홍순복/손영호/차도훈/최난수/
35	다시중앙교회	김기동(목)	최광성/곽종철/황정옥/손병석/박두호
36	인일교회	김종길(목)	허영수,박정순/이찬호,최정순
37	논공소망교회	박철수(목)	오숙영,장정원/박경준,전정숙/하인선,남태순
38	연동세교회	문점득(목)	최학인,최소희
39	국민교회	황상모(목)	최규초/김계성/김현성,장은숙/조정식
40	늘사랑할바라기연합	이승찬(목)	1-12/김중운
41	복인민주인운동본부	강철환	이관규,이순영
42	지아침선교회	유창진(목)	박정임
43	탈북민민보요동본부	김상철	김상철,최원자
44	평화교회의대성공사	조용표(목)	서중숙/이강진,송미령
45	평화의집	김영환(목)	신혼가정부
46	탈북귀순동포정착협의회	석사현	1-22/예사모
47	531탄약대	김완수(목)	김유영,소연,세환
48	고성진부형	주수원(목)	1-24/김용환,김수원
49	백령도63세대	권혁민(목)	이갑진
50	침빛교회	김상수(목)	오유식,이봉규
51	미시령교회	최상열(목)	김명옥,오병호
52	대동교회	한영(목)	이복규,한명순
53	빛나는교회	이성우(목)	주동재,김동진
54	솔밭교회	김춘식(목)	김정호,김신영
55	어미촌교회	강명관(목)	안본선
56	어담제일교회	정재용(목)	유승준,소선자
57	애암교회	오창식(목)	홍승진,황정임
58	기온중앙교회	황종호(목)	윤석배/이원희
59	신현교회	유기종(목)	김상태
60	제자교회	정경표(목)	장덕
61	한미음교회	석천(목)	조철기,김영란
62	이외교회	임동만(목)	이강인,허숙

금주의 성구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였도다 하였도다 (시 126:1-2)

When the LORD brought back the captives to Zion, we were like men who dreamed. Our mouths were filled with laughter, our tongues with songs of joy. Then it was said among the nations,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Psalms 126:1-2 [NIV])

27학기 목회자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기다리던 목회자세미나 시작되다!



교회가 기도로 준비해온 27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은혜 중에 시작되었다. 7일 오후 1시를 넘어서자 원근 각처에서 올라오신 목사님들의 발걸음으로 교회는 생동감이 넘쳐흐르는 가운데 봉사자들의 손길도 바쁘게 움직였다. 늘 느끼는 감사지만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맑고 겸손한 표정에서 먼저 은혜가 되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처음으로 우리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신다는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은 '기독교보' 신문을 보고 세미나가 있는 걸 알게 되었다며 텔레비전을 통해 이종운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교회에 참가해 보니, 안내에서부터 식당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질서 정연한 가운데 절제가 느껴진다고 개강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 또한 서울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진 동기와 순례자를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지 물으시며 이번 세미나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으셨다. 또 다른 목사님은 이 세미나를 통해 말씀대로 청빈한 삶을 살며 실제 생활에 목사님 말씀을 접목시킬 수 있어서 계속 참석하시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많은 목사님들의 높은 호응 뒤에는 언제나 말없이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이 있어 은혜가 더했다. 8층 식당에는 항상 그랬듯이 권사님들께서 토요일부터 시장을 봐 준비한 맛있는 음식들로 저절로 입안에 침이 넘어갔다. 권사님들

은 한 결 같이 기쁨과 감사로 준비한 음식을 많은 목사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드시고 영적 은혜를 충만이 받는 게 기쁨이라며 조금도 어려운 점이 없으며 환하게 웃으셨다. 김밥을 맡으며 세미나를 준비했던 때부터 혹은 이제 갖 봉사하시는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맑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가 넘친다는 말을 연거푸 하셨다. 또 항상 목사님께서 꼭 12시에 오셔서 축복 기도 해 주시는 게 큰 기쁨이라며 얼굴 가득 자랑스러움이 넘쳐 났다. 주차장에서 일층 서적부와 안내부 이층 접수처와 따뜻한 커피로 봉사하시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주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교회는 감사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한다.

오늘 이 세미나를 총 총괄하신 민순구 장로님은 모든 봉사자가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존경과 겸손한 마음으로 대대드리며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소를 잊지 않고 섬겨준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셨다. 장로님께서도 숭신수범하는 모습으로 일찍 나와 곳곳을 둘러보았으며, 원활히 진행하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하셨다. 모든 일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기를 늘 기도 하신다고 환한 미소를 얼굴 가득 지으셨다.

유명희(편집부)

사순절의 묵상

당신의 사랑 없이는...

한상준집사(13교구)



당신의 사랑 없이는 나의 생이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눈앞에 부딪히는 고통과 아픔, 정죄와 질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기쁨 부음 없이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캄캄한 하늘을 방황할 뿐입니다.

머나먼 인생의 항로를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한치의 앞도 볼 수 없어 허물어져 좌절과 실의에 빠져 방황하는 인생들을 치유하실 분은 바로 당신의 사랑 뿐 일것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사 우리의 생을 풍성케 하신 당신의 사랑...

희생으로 생명을 주시었고, 고난으로 평화를 주신 당신의 사랑은 우리 생의 가장 큰 행복이입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복잡한 현대 생활의 상처 난 부분들

질서와 평안, 자유와 행복을 내세우며 짓밟힌 거리 허물어진 영혼, 상처 난 심령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들을 치유할 수는 없음입니다.

현실을 도외시한 찬란한 미래의 행복보다도 위대한 새날의 새 희망보다도 한날 한날의 괴로움에 족하고매 일 매일의 생활 속에 기쁨을 소유하며 참된 행복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사랑으로 인함임을 깨달아야겠나이다.

먼데서 흐르는 맑은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당신께서 허락하신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게 하시어 당신의 장막 안에서 사철 푸른 실과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여야겠나이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풍요한 삶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겠나이다..... 당신의 사랑 없이는.....



장로 가정 탐방 - 홍성주 장로 가정

신앙의 유산

30년이 넘게 교직에서 봉사하고 계신 홍성주 장로님. 오랜 교직 생활동안 일궈온 학생선교운동은 장로님의 끝나지 않는 비전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마치 자식과 같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 바람은 동대문상업고등학교에 기독교학생반이 생기는 결실로 나타났다. 초창기에는 재직 중인 학교가 미션스쿨이 아니었기에 기독교학생반은 많은 반대에 부딪쳐야 했다. 학교 안에서 모임을 가질 곳을 구하지 못해 학교 인근의 교회에서 기독교학생반의 모임을 갖기도 했었다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학교에 인정을 받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모여, 기도하는 학생선교운동의 전초기지가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장로님의 신앙은 할머니께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현재 믿음의 계대가 5대째 이어지고 있다.) 어릴 적 장로님의 할머니께서는 눈이 올 때면, 언덕 위에 있는 교회로 새벽예배를 가시기 위해 장로님을 깨우셨다고 한다. 그때는 모르고 따라나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손자에 신앙을



물려주려 하셨던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신다고 하신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평온하신 모습으로 소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부인이신 여현진 권사님은 유교집안에서 태어나셨지만, 삼촌과 고모의 전도로 유치부를 나가신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권사님

과 형제들의 기도로 권사님의 부모님께서도 주님을 영접하셨다고 하신다.

장로님과 권사님께서는 슬하에 두 딸을 두셨는데 큰 딸 지민씨는 출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며 지금은 어머니 조옥순 권사님과 막내 딸 진선양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다.

매 방학이면 기독교사 세미나와 수련회 등에 참석해 학생선교방법을 연구하신다는 장로님.

기독교학생반에서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며, 그 수가 늘어가는 것을 보며 오늘도 되뇌신다.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 라고.

오주명(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70인전도대 중보기도팀

나룻배의 사명



이인선 권사
(12교구, 70인 전도대 중보 기도팀장)

70인 전도대가 손과 발로 뛰면서 마음에 담은 전도의 사명을 입으로 전달하는데 때로는 떨리기도 하고 구박 받기도 합니다. 매정하게 쫓겨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교회는 이들의 전도를 통하여 매우 많은 새가족이 등록하고 있고 이 재미 때문에 70인 전도대는 포기를 모르고 삽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보기도 팀도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간절한 기도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대는 간접 사역이고 눈으로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사역이므로 더욱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힘씁니다. 중보 기도팀이 모인 기도실에는 어떤 불가능도 기도 제목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제목들이 더욱 기도 열기를 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을 느낍니다.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는 동안 아파트 전도를 나간 70인 전도대는 생각지도 않게 문을 열어주고 친절히 대해주고 맞장까지 해주는 체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파트를 돌면서 초인종을 누를 때 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으나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넘치는 경험 때문에 전도가 흥분되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팀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추운 겨울에도 열기가 나고 땀이 뒤범벅이 되어 스스로도 성령 체험을 느끼기에 나룻배가 사람을 건네주고 심부름을 하듯 중간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입니다.



새로왔어요

영어예배, Wonderful 입니다!!!

Jordan Dover, Kristin Dover

영어예배, 정말 은혜 넘칩니다. Wonderful(원더풀)입니다." 마치 한국 사람처럼 우리말을 또박또박 해내는 조던 형제는 영어예배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원더풀'이란 찬사부터 쏟아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에서 한국정치를 전공하고 있는 조던 형제는 우리교회에서 올해 초부터 시작된 영어예배에서 봉사하고 있는 미국인 유학생이다. 고등학교 때 만난 부인 Kristin자매와 함께 매주 영어예배의 진행 전반을 돕고, 성경공부 인도도 하고 있다.

조던형제가 처음 서울교회에 온 것은 이미 10여 년 전인 1993년. 미국의 중,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였던 오명걸 군과 함께 크리스마스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여행을 왔을 때였다. "뉴욕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예배시간도 꼭 일정하지 않았고 찬양대도 이번 주는 찬양단만, 다음 주는 관현악단만 하는 식으로 일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많습디다. 저도 그런 생활에 익숙했는데 서울교회에 와서 보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정말 엄숙하고, 철저하고, 경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두들 성경공부와 각종 봉사를 하더군요. 처음에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서울교회의 풍경이 처음엔 그저 신기한 정도였지만 그 뒤



로도 자주 한국에 들어와 서울교회에 나오면서 점점 자신도 그런 믿음 생활에 적응해갔다. 대학생 때인 지난 2002년엔 숭실대 교환학생으로 다시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 교회 핸드벨콰이어에서 1년 가까이 봉사하기도 했다.

고등학생들에게 성경공부 인도를 했던 경험으로 시작하게 된 영어 성경공부 인도도 조던형제에겐 각별하다. 영어로 대화를 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더욱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외국인 이 저희 부부와 목사님 밖에 없고, 나머지 150명 정도의 예배참석 인원은 모

두 서울교회 성도들입니다. 저희는 이들과의 대화와 나눔, 성경공부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앙의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처음엔 김치와 번데기 냄새가 싫었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던 한국 생활이 이젠 정이 들게 된 것은 상당부분 서울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라고 조던형제는 고백한다. 남은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일단은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지만 그동안 서울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더욱 가까이 모시게 된 주님께서 앞으로 또 어떤 인도하심으로 한국과 서울교회와의 만남을 다시 허락하실 지 이들 부부는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다.

김민철(편집부)

유아부 새 세대 부모모임 개강

3월24일(목) 10시30분 603호

유아부에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부 새 세대 부모모임'이 개강된다.

새 세대 부모모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MBTI(마이어스 브리그스 심리유형검사) 전문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날 짜	강의내용
3월24일	소개 및 심리검사 / 별칭 짓기 및 가지소개
3월31일	지표 설명 / 유형별 그룹활동
4월7일	기질별 특성 이해 / 집단활동
4월14일	기질의 심리게임 이해 / 집단활동
4월21일	고유한 내 모습 / 개발과 활용
4월28일	소풍(과천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단신

서울 주부대학 3월15일 강좌 안내
아름다운 음악과 생활: 김정력 장로(SBS 예술 단장)

등정

- 이종윤 목사는 14일(월) 한국기독교 학술원 총회, 17일(목) 복음 신앙 동지회, 19(토) 한국장로회신학회를 각각 소집한다.
- 주간식당봉사: 빌립남선교회(3월13일) 안드레남선교회(3월20일)
- 금주의 식사: 김중운 집사 김혜영 권사 가정(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틀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3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7학기 목회자 세미나 · 16학기 서울성경대학 ·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환란 중에 있는 이들이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4. 국가에 비전을 주시고 백성이 하나되게 하소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세례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